

GLOBAL FX

미-멕시코 무역협상타결로 달러약세

EUR/USD

전일 EUR/USD는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국간 협상의 3대 쟁정은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간 소송이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양국은 일몰조항 등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제 캐나다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는 "곧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캐나다가 우리 합의에 동참할지, 아니면 별도의 협상을 타결해야 할 지는 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흐름과 관련해 TD 증권은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최근 파월의장 연설과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달러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7월 회의록에서 ECB는 장기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축소에 대해서는 시기를 말하지 않았고 경제지표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최근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유로존 경제지표호조와 같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GBP/USD

GBP/USD는 유로화와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며 상승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아프리카 시장 확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취임을 처음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이 영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강경파들은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영국 재무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의 GDP가 향후 15년간 7.7% 감소하고 연간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USD/JPY

USD/JPY는 비둘기 연준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상 타결은 글로벌달러 약세를 견인했지만 달러엔 시장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물가급등과 경기과열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 연준이 비둘기파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자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2007년 이후 최대로 플래트닝해진 점 역시 달러 지지력을 줄이고 있다. 다이와증권의 미쓰오 전략가는 "파월의 발언에는 특이한 게 전혀 없었다"며 "현재 정책 궤적을 고수했는데 이는 미국 수익률 곡선의 플래트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상호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나프타가 아닌 미-멕시코 무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캐나다와 무역 재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뒤 글로벌 증시는 상승했고 달러가치는 하락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엔화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엔 통화쌍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달러엔은 이어질 캐나다와의 협상이슈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비둘기적인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팀

02-3707-3699

www.ssfutures.com

8월 27일	결과	전망	이전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0.13	0.45	0.43

8월 28일	결과	전망	이전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17.0	20.0



본 조서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서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서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와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UR/USD



Comment

EUR/USD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지난 4월부터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유로화는 8월 중순 연저점 갱신후 볼린저밴드 하단의 지지를 받고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볼린저밴드 중심선과 피보나치 23.6%레벨 등 주요 저항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보조지표상으로도 모두 매수 신호가 유효한 상황이다. 볼린저밴드 폭이 넓어져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볼린저밴드 상한선까지는 별다른 저항선이 보이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상승모멘텀이 우세해 보이며 단기적으로 1.170대 돌파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1.165	1.160	1.157	1.170	1.173	1.177

GBP/USD



Comment

GBP/USD는 유로화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최근 볼린저밴드 하한선과 움직임을 같이 하며 하락세를 보였던 파운드화는 8월중순부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막히는 모습이었으나 금일 돌파하며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다. 추세지표와 모멘텀 지표는 모두 매수 신호가 유효하다. 상승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금주 1.300대의 돌파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1.285	1.282	1.280	1.293	1.297	1.300



USD/JPY



Comment

USD/JPY는 소폭하락하며 2거래일째 약세를 나타냈다. 최근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조지표상으로는 여전히 모두 매수 신호가 유효하다. 볼린저밴드 폭이 좁아져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태이다. 111엔을 사이에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현재 가격대가 볼린저밴드 중심선, 피보나치 61.8%, 111엔등 주요 분기점에 도달해있어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방향성이 모호해 보이는 가운데 금일은 111엔과 볼린저밴드 중심선의 지지여부에 따라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111.00	110.52	110.00	111.38	111.68	112.00

Technical Summary

		EUR/USD	GBP/USD	USD/JPY	EUR/JPY	GBP/JPY
S M A	5	1.1624	1.2871	111.04	129.07	142.93
	10	1.1533	1.2822	110.77	127.76	142.03
	20	1.1530	1.2860	110.99	127.98	142.74
	60	1.1629	1.3097	110.94	129.01	145.29
	120	1.1855	1.3447	109.55	129.82	147.24
	200	1.1963	1.3552	109.82	131.34	148.77
P I V O T	2차 저항	1.1749	1.2939	111.5875	130.4750	142.9870
	1차 저항	1.1705	1.2905	111.3750	130.0700	143.4410
	PIVOT	1.1650	1.2867	111.1575	129.4350	142.9870
	1차 지지	1.1606	1.2833	110.9450	129.0300	142.6850
	2차 지지	1.1551	1.2795	110.7275	128.3950	142.2310
D M	High	1.1736	1.2933	111.23	130.30	143.63
	Low	1.1637	1.2861	110.80	129.26	142.87

